



11일 함평 다이내스티 골프장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 KB국민은행 스타투어 1차대회 최종 3라운드 연장전 첫 홀(18번홀)에서 조아람(오른쪽)이 우승 버디 퍼트를 성공시키고 있다. 이날 5월의 푸르름이 더해가는 함평 다이내스티 골프장에는 수많은 갤러리가 몰려 정상급 선수들의 샷에 감탄을 자아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조아람 극적인 역전... 첫 정상 입맞춤

세계 283위 전용선 '돌풍'

세계 정상급 독 슈틀러 꺾고 결승 진출

안선주·조영란과 연장 접전
환상의 4m 퍼팅 성공 우승

KLPGA KB국민은행 스타투어 1차 대회

연장까지 가는 명승부 끝에 극적인 역전으로 첫우승.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KB국민은행 스타투어 1차대회 우승컵은 마지막까지 퍼팅 라인을 정교하게 읽어낸 조아람(23·ADT)의 품에 안겼다.

조아람은 11일 4계절 양산디로 5월의 신록이 눈부신 함평 다이내스티 골프장(파72·6천270야드)에서 열린 대회 최종 3라운드 연장 끝에 첫 우승을 차지해 '엘로우 자켓'의 주인공이 됐다.

2라운드까지 2언더파 142타 7위로 3라운드를 맞은 조아람은 이날 5언더파를 쳐 3라운드 합계 7언더파 209타로 경기를 마쳤다. 같은 조의 조영란(21·하이마트)도 18번홀에서 버디를 성공시켜 3라운드 합계 7언더파로 조아람과 함께 공동 2위로 경기를 끝냈다.

17번홀까지 3라운드 합계 8언더파 단독선두를 기록하던 안선주(21·하이마트)가 마지막 18번홀 티샷을 준비하고 있을 때만 해도 그의 3년연속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이 확정된 듯 했다.

하지만 안선주는 18번홀에서 두 번째 샷을 그린에 올린 후 1.5m 파퍼팅을 실패해 보기를 기록하며 7언더파로 조아람, 조영란과 함께 공동선두가 돼 연장에 돌입했다.

연장 첫 홀인 18번 홀에서 조아람은 호쾌한 드라이버 샷에 이어 두번째 샷을 홀컵 4m 앞에 붙였고, 역시 안선주와 조영란도 두번째 샷을 그린에 올려 퍼팅으로 승부를 가리게 됐

KB 스타투어 1차대회 최종순위
1 조아람 -7, 합계 209(71 71 67)
* 연장 우승
2 조영란 (71 70 68)
안선주 (67 70 72)
4 남민지 -6, 210(69 71 70)
정미희 (69 70 71)
이일희 (70 69 71)
7 편애리 -4, 212(70 76 66)
8 홍란 -3, 213(73 70 70)
윤슬아 (70 73 70)
10 장지혜 -2, 214(70 75 69)
김하늘 (73 69 72)
김혜윤 (68 70 76)

다.

먼저 퍼트를 한 안선주가 홀에 볼을 넣지 못하자 조아람은 4m를 남겨 놓은 홀라인에서 정교하게 퍼트해 버디를 잡아냈다. 마지막 조영란의 퍼트도 위협적이었지만 볼은 홀을 살짝 비껴나갔다.

안선주는 지난해 함평다이내스티 18번홀에서 트리플 보기를 기록했던 악몽을 떨치지 못하고 다잡은 우승을 놓치며 공동 2위에 머물렀다.

조영란은 이날 후반 11번~15번, 마지막 18번홀 등 후반에 만 무려 6개의 버디를 기록하며 선전했으나 연장에서 조아람의 행운의 버디퍼트 앞에 공동 2위에 만족해야 했다.

기대를 모았던 김하늘(20·엘로드)은 이븐파를 기록 3라운드 합계 2언더파 214타로 10위에 그쳤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연장 접전 끝에 극적인 역전으로 국내대회 첫 우승을 차지한 조아람이 트로피를 안고 활짝 웃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ATP 스파르카센컵 단식

전용선(22)이 남자프로테니스(ATP) 전 세계랭킹 5위 라이너 슈틀러(32·독일)를 꺾는 파란을 일으켰다.

세계랭킹 283위 전용선은 11일(한국시간) 독일 드레스덴에서 열린 ATP 헬린저스파르카센컵(총상금 5만유로) 단식 4강전에서 슈틀러에 2-1(6-2 3-6 6-4)로 이겨 결승에 진출했다.

슈틀러는 현재 랭킹은 89위지만 2004년 5월까지 올랐던 선수로 ATP 투어에서 단식 우승 4회, 준우승 8회를 기록한 베테랑

이다.

지난 해 6월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열린 헬린저대회 이후 개인 통산 두 번째로 결승에 오른 전용선은 안드레아스 벡(160위·독일)과 우승을 놓고 다투게 됐다.

전용선은 복식에서도 다니엘 브란스(독일)와 한 조로 결승에 올라 있어 이 대회 단복식 석권을 노린다.

ATP 마스터스시리즈 인터내셔널 BNL 이탈리아(총상금 227만유로)에서는 세계 3위 노박 조코비치(세르비아)와 스타니스라스 바빈카(24위·스위스)가 결승에서 맞붙는다.

신지애 두번째 日무대 정복 실패

월드레이디스챔피언십 준우승

한국여자프로골프의 '지존' 신지애(20·하이마트)가 두번째로 나선 일본 무대 제패는 어렵게 무산됐다.

신지애는 11일 일본 도쿄의 요미우리골프장(파72·6천523야드)에서 열린 일본여자프로골프 샬롱파스컵 월드레이디스챔피언십 최종 라운드에서 후쿠시마 아키코(일본)와 연장 5개홀까지 가는 접전 끝에 준우승에 머물렀다.

18번홀(파4)에서 치러진 다섯번째 연장전에서 신지애는 10m거리에서 버디 퍼트와 파퍼트 뿐 아니라 보기퍼트마저 넣지 못하는 뼈아픈 4퍼트로 무릎을 꿇었다.

후쿠시마는 3퍼트 보기로 속스러운 우승컵을 안았다. 버디 3개와 보기 1개를 묶어 1언더파 71타를 쳐 1오버파 73타로 뒷걸음친 후쿠시마를 따라 잡아 4라운드 합계 4언더파 284타로 연장 승부로 몰고간 신지애로선 통탄의 더할모가없다.

준우승 상금으로 1천1만엔을 받아 1억

원이 넘는 외화를 챙긴 것이 그나마 위안이 됐다.

전미정(26·진로)이 5위(1오버파 289타), 송보배(22·슈페리어)가 6위(2오버파 290타)에 올랐고 이지희(29·진로)가 공동 10위(5오버파 293타)를 차지해 한국 선수 3명이 '톱10'에 입성했다.

박동철 목포대 교수

검도 국가대표 감독



박동철 목포대(체육학과)교수가 2009년 8월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열리는 '제14회 세계 검도선수권대회' 국가대표 감독으로 선임됐다.

박 교수는 대한무도학회 부회장, 한국체육학회, 대한검도회 상임이사, 대한검도학회 상임이사, 전남 검도회 실무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조아람 인터뷰

“숯게임·어프로치 집중 연습 주효”

“너무 기쁘요! 골프장에 못나오신 아버지와 지난해 돌아가신 어머니께 이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11일 마무리된 KB국민은행 스타투어 1차 대회에서 연장 끝에 우승을 차지한 조아람

(23·ADT)은 “하늘에 계신 어머니의 보살핌으로 인해 뜻밖의 우승을 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난 2004년에 이어 2006~2007년 미국LPGA에서 활동해 국내 팬들에게 다소 낯선

조아람은 생애 첫 국내대회 우승을 KB 국민은행 스타투어 대회 개막전에서 거머쥐었다.

호쾌한 드라이버 샷이 장기간 조아람은 “이번 대회를 앞두고 스윙 밸런스가 무너져

숯게임과 퍼팅에서 점수를 만회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숯게임과 퍼팅을 연습한 것이 우승의 원동력”이라고 밝혔다.

특히 “숯게임에서 52도와 56도로 짧은 거리 어프로치 연습을 많이 한 것이 주효했다”는 조아람은 “틀나는 대로 국내대회에 도전하겠다”고 말했다. 로리 케인을 존경하는 조아람의 올 시즌 목표는 국내대회 3승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